



Global Goings-on

녹색성장: 성장과 환경,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있는 신흥국가 기업들
Some emerging-world companies are combining growth with greenery

- ▶ 과거에 가난했던 나라들이 부유해진 것은 가장 환영할 만한 이 시대의 소득이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 세계 인구가 현재 70억에서 2050년에 93억으로 늘어나고 인구학자들이 예상하듯 점점 더 많은 인구가 과거 엘리트들만 누리던 재화를 사용하게 된다면 이미 흑사당하고 있는 환경에 더 큰 부담이 될 것
 - 지구는 그러한 경제활동을 견뎌낼 수 있을까?
- ▶ 많은 정책 결정자들은 지구의 환경문제에도 상의하달식(top-down), 서구중심적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어
 - 그들은 세계 포럼에서 야심 찬 환경규정들을 논의하고 거대 다국적 기업과 돈 많은 NGO들이 본이 될 것을 기대해
 - 그러나 대부분의 인구가 신흥세계에 밀집된 만큼 신흥세계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어 내고 있는 성공적인 기업들을 살펴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 ▶ World Economic Forum과 Boston Consulting Group이 공동으로 추진한 연구에서 환경의 식을 경쟁적 우위로 전환하고 있는 16개의 신흥시장 기업들이 소개돼
 - 이 기업들은 환경정책을 통해 비용을 줄이고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며 다른 사회구성원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 이 기업들의 아이디어는 지역 기업들이 창출해낸 것인 만큼 서구에서 만들어진 어떤 아이디어들보다 지역의 다른 기업들이 따라 하기가 더 쉬울 것
- ▶ 이 기업들에서 발견되는 가장 골목할 만한 점은 자원, 노동, 인프라의 부족을 오히려 기회로 살렸다는 것
 - 물 부족에 시달려 온 인도의 Shree Cement는 물을 이용한 냉각시스템 대신 공기를 이용한 냉각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시멘트를 만드는 데 물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개발해
 - 필리핀 수도회사인 Manila Water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을 제

공함으로써 낭비와 불법수도관 사용 등을 통해 소실되던 수도의 양을 1997년 63%에서 2010년 12%까지 줄여

- 에어컨을 제조하는 중국회사인 Broad Group은 건물에서 발생하는 쓸모 없는 열을 기계 작동에 사용해
- 중국 양식업 회사인 Zhangzidao Fishery Group은 먹다 남은 고기밥을 곡물비료로 사용하고 있어

▶ 이 기업들은 환경에 미친 영향에 따라 기업의 성과를 평가하기도 해

- 코스타리카의 식품음료회사인 Florida Ice & Fam은 사장 급여의 60%를 “사람, 지구, 수익” 이 세가지 부분에 나타난 결과에 연계해

▶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이 기업들은 직원들이 환경개선 아이디어를 내도록 권장하기도 해

- 브라질의 화장품회사인 Natura는 회사가 환경에 미치는 위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는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하고 있으며 칠레의 조림 회사인 masisa는 극빈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상상하기 어려운 사업을 상상하도록” 부추겨
- 남아프리카 소매기업인 Woolworths는 회사가 소유한 대부분의 녹색성장 아이디어 들은 임원이 아닌 직원들에게서 나온 것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해

▶ 신흥시장에서는 기업들이 인프라부터 불안

정한 supply chain에 이르기까지 고려해야 할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한 가지 문제에만 집중하기가 힘들어

- 따라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들은 기업이 몸담고 있는 환경 개선에 나서
- 그들은 정부규제기관에 로비를 하고 정부 기관 및 NGO들과 제휴를 맺어
- 케냐의 Equity Bank는 영세업자들에게 대출 시 대출위험을 낮추기 위해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와 제휴를 맺었으며 Natura는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원료로 제작한 “녹색”플라스틱을 포함, 환경 부담을 낮추는 포장법을 개발하기 위해 납품업자들과 협력하기도 해

▶ 이러한 기업들은 단기간 손해를 보더라도 보다 장기적인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가난한 소비자들을 돕고 교육하는 일에도 투자해

- Masisa는 지역의 목공들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형성한 후 이들을 저소득 가구 구매자들과 연결시켜
- Broad Group은 휴대폰에 탑재될 수 있는 미니 공기오염측정기를 개발해
- 인도의 배수관 제조사인 Jain Irrigation은 문맹인 농부들에게 적수관개(파이프 망을 통해 식물의 뿌리 부분에 간헐적으로 물을 주는 방법)의 장점을 설명하기 위해 춤과 노래를 사용하고 있어
- 중국 태양에너지 회사인 Suntech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방법을 홍보하기 위해 저탄소 박물관을 설립해

▶ 녹색성장을 추구해 성공한 것인가, 아니면 충분히 성공했기에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것인가?

- 스위스 IMD의 Phil Rosenzweig은 경영에 관한 책을 쓰는 사람들이 회사의 일시적 성공을 마치 영구적인 성공적 경영기법을 발견한 마냥 쓰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하며 일부 성공한 기업들이 녹색성장을 채택했다고 해서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기업의 성공을 불러 온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말해

- 그는 성공한 기업들은 환경에 신경 쓸 수 있을 만큼 재정적인 여력이 있고 대외 홍보효과를 위해 환경에 투자한다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신흥시장 기업이 10 곳이라면 대기를 오염시키고 독극물을 강에 방류해 성공한 신흥시장 기업은 100곳이라고 말해

▶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신흥세계 기업들이 환경보전과 이윤추구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는 WEF-BCG연구의 핵심 주제는 시사하는 바가 많아

- 환경주의를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은 환경보전에 대한 노력은 부유한 세계의 사치품이라고 주장해 와

- 일부는 녹색성장은 부유한 세계의 음모로 까지 얘기해

- WEF-BCG 보고서는 그러한 오해를 일축해

- 신흥시장 기업들은 서구의 기업들만큼 녹색을 추구할 수 있으며 천연자원이 부족하

고 소비자들의 소득이 낮을 때 녹색성장은 비전 있는 사업전략이 될 수 있음을 입증해

2011년 9월 17일 / The Economist

〈원문링크: <http://www.economist.com/node/21529015>〉

★ bottom line: 녹색성장은 부유한 서구 기업들의 사치품이 아니라 가난한 신흥국가의 기업들도 추구할 수 있는 비전 있는 사업전략

스페인

지방흡입이 필요한 스페인의 의료비 Health Spending in Spain: Fat-trimming needed

▶ 스페인 중부 Villanueva de Alcoron에 있는 Julia Martinez씨의 약국 진열대엔 약이 부족해

- Castile-La Mancha 정부가 소비자들의 석달치 약 값을 아직 지불하지 않아

▶ Martinez씨는 서로 관련된 두 가지 문제의 희생양 - 스페인 정부의 예산적자와 치솟고 있는 의료비

- 중앙정부는 공공지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지방정부의 예산 적자를 GDP 1.3% 수준으로 막고 싶어하지만 지난 6월에 이미

- 1.2%에 육박해
- 스페인의 사회당 재무장관인 Elena Salgado는 스페인의 전체 예산 적자 목표인 GDP 6%를 달성하겠다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지방정부들의 문제를 해결할 다른 자원을 찾아야 할 것
- 최근 주장되고 있는 대안은 부자세
- ▶ 의료비는 지방정부 예산의 30~40%를 차지해
 - 장수하는 스페인 사람들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의료서비스를 무상으로 누리고 있어
 - 치솟는 약값, 고령 인구, 느슨한 가격 통제 및 세수입의 감소가 함께 맞물려 스페인의 의료시스템을 몰락 직전까지 몰고 가고 있어
 - 한 추정에 따르면 스페인의 의료비는 2018년까지 두 배로 증가할 것
- ▶ 그 여파가 벌써 나타나고 있어
 - 올 여름 지중해 해변 휴양지의 의사들은 휴가 온 스페인 사람들에게 일부 고가의 약에 대한 처방을 거절해
 - 지방의 한 보건당국 관리에 따르면 과거 그 정부의 보건예산이 15%나 초과한 적도 있어
 - 세수입이 증가하던 때에는 이러한 예산초과는 해결될 수 있었으나 현재는 그 빛이 제약회사나 의료기술 공급자들에게로 전가되고 있어
 - 스페인 정부는 이들에게 총 규모 95억불 유료에 해당되는 부채를 지고 있으며 지불되지 않은 병원 약값을 받으려면 평균 430일을 기다려야 한다고 제약산업협회의
- Humberto Ames씨가 말해; “결국 우리가 스페인 의료시스템에 돈을 대고 있는 셈입니다.”
- ▶ 부유국가들의 think-tank인 OECD의 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스페인의 의료비를 줄일 수 있는 효율성 증가의 여지는 남아 있으나 다른 나라에 비해 스페인은 그마저도 활용의 여지가 낮아
 - 스페인 의사와 간호사는 유럽기준으로 볼 때 급여가 낮은 편이지만 스페인 의료비에서 이들에 대한 비용은 절반을 차지해
 - 또한 대부분의 의료종사자들은 해고가 불가능한 공무원
- ▶ 작년 스페인 중앙정부는 공무원의 임금을 5% 삭감해
 - 공공보건서비스 일부를 외부 업체로 넘기는 다양한 모델들이 사용되고 있지만 1차 진료 단계에서 수행할 수 있는 비용삭감에 대한 노력이 더 필요해
 - 조제약 비용을 줄이기 위한 보다 공격적인 접근은 2년 간 비용을 15% 삭감할 수 있어
 - 물론 이 모든 노력도 현 사태를 해결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해
- ▶ 스페인에서는 사람들이 의료비를 절감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게 할 인센티브가 거의 없어
 - 스페인 사람들은 1년에 평균 8번 의사를 보는데 이는 독일 다음으로 유럽 15개국 중 가장 높아
 - 의사들은 비용을 생각 않고 약을 조제해:

최근까지 1인당 평균 조제 약값은 영국보다 40% 높아

- 연금 수급자들의 의료비도 정부가 다 지불해
- Galicia 정부의 PP 회장인 Alberto Nunez Feijoo는 스페인은 교육보다 약값을 지불하는 데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다고 불평해

▶ 정치인들은 효율성을 높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해

- 그러나 PP조차도 환자들이 의사 방문 시 일정한 비용을 지불토록 하는 방법을 제외하고 있어
- 소수의 용감한 정치인들만 서비스를 줄이느냐, 재원을 더 확보하느냐의 양자택일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고 있어

▶ 한편 스페인 사람들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어

- 올리브 기름, 신선한 야채와 콩을 많이 섭취하는 유명한 지중해식 다이어트가 점점 불량 식품에 자리를 내어주면서 비만, 당뇨, 수명 단축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 스페인 사람들을, 스페인 보건의료시스템 모두 날씬해 져야 할 것

2011년 9월 17일 / The Economist

<원문링크: <http://www.economist.com/node/21529082>>

★ bottom line: 비용 효율성을 높이고 의료비 절감을 위한 인센티브를 정립하지 않는 한 스페인 보건의료시스템의 몰락을 막기는 어려울 듯

미 국

교토 프로토콜에 부정적인

미국 기후변화 사절

Obama's envoy for climate change casts doubt on Kyoto protocol

▶ 미국의 기후변화 사절인 Todd Stem은 남아프리카에서의 기후변화 협상이 온실가스 배출량 제한에 대한 무리한 요구로 난항을 겪을 수 있다고 말해

-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기후변화 협상단을 이끄는 Todd Stem이 올해 12월 남아프리카에서 열릴 국제기후협상의 주요 의제인 교토 프로토콜의 미래에 대해 의심 어린 경고를 보내

▶ Todd Stem은 교토 프로토콜의 규정들이 만료되는 2012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토 프로토콜을 지지할 나라는 EU 뿐이었다며 교토 프로토콜에 대한 낮은 지지로 인해 더반에서의 협상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 교토 프로토콜은 1997년 일본의 교토에서 열린 협상 결과 일부 국가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한할 것을 결정한 국제협약으로 세계 대부분의 산업국가들에게 가입한 유일한 협약이지만 Stem은 그 미래에 의구심을 던져

- 교토 프로토콜에 참가한 주요 국가들 중 EU만 또 한 번의 유사한 협약에 서명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 Stem의 말은 교토 프로토콜을 버리지 않는 한 기후변화에 관한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것임을 시사해
- ▶ 많은 전문가들은 교토 프로토콜의 미래에 관한 협상이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말하고 있어
 - 영국 정부의 과학 자문위원이었던 David King 경은 지구온난화에 대한 새로운 국제 협약을 맺는데 있어 방해만 되어 왔던 교토 프로토콜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 ▶ 대부분의 거대 개발도상국들은 이미 1997년 협약이 또 다른 기후변화협약의 전제조건으로 지속되어야 한다고 못박아 놓고 있어 교토 프로토콜의 미래는 유엔 기후협상에서 주된 난관이 될 것
 - 이들 개발도상국들은 힘겹게 얻어 낸 기후 변화 프로토콜을 부유국들이 버리려 한다면 격분해
 - 교토 프로토콜 폐지에 관한 선진국과 개도국 진영 사이의 불화는 2009년 코펜하겐 기후 정상회의가 실패한 주된 이유
- ▶ 미국은 교토 프로토콜을 승인한 적도 없고 현 정권도 이전 정권의 입장을 그대로 승계했기 때문에 교토 프로토콜 협상 자체에 참여할 수 없을 것임
 - 그러나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를 자랑하는 미국의 기후변화 협상단을 이끄는 Stem의 관점은 기후변화에 대한 세계의 대책에 관한 논의에서 엄청난 무게를 갖고 있어
- 교토 프로토콜은 가장 어려운 협상주제 중 하나라고 수긍한 Stem은 미국이 교토 프로토콜 가입국은 아니지만 교토 프로토콜의 향방이 미래 기후변화대책에 관한 공감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해
 - 그는 또한 미국은 온실가스 배출을 통제할 미래 협의체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단일한 통제 기구를 들지 교토 프로토콜과 병행하는 또 다른 기구를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국제 협상에 참가한 적이 있다고 말해
 - 여기에서 논의된 주제 중 하나는 미래의 제도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질 것인가였음.
- ▶ 미국은 일부 국가들에게 탈출구를 제공하는 기후변화 통제 시스템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개발 도상국들도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그들의 의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Stem은 주장해
 - 교토 프로토콜 이전 조약이었던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가 발효된 1992년에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었던 중국, 인도, 브라질은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그들의 의무를 유보할 수 있었으나 지난 20년간 이들이 많은 성장을 이룸에 따라 국제사회가 변해있다는 것이 미국의 관점
 - 즉 중국과 같은 거대 신흥경제들이 책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미국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

▶ 코펜하겐과 칸쿤에서의 협상에서 중국, 인도 외 일부 거대 신흥경제들은 미래에 배출량을 줄이는 데 합의했으나 절대적 감소량을 정해서 지키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으며 그 합의는 교토 프로토콜과 같은 법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아

▶ Stem은 더반에서 기후에 관한 새로운 국제 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데 대해 비관적이지는 않다는 점을 강조해

▶ 그러나 올해 의미 있는 새로운 협약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

- 내년 말 Rio de Janeiro에서는 더 큰 회의가 예정돼 있어

2011년 9월 19일 / The Guardian

〈원문링크: <http://www.guardian.co.uk/environment/2011/sep/19/us-envoy-climate-change-emissions>〉

★ bottom line: 중국, 인도와 같은 거대 신흥국가들이 기후변화를 막는 노력에서 동일한 의무를 지지 않는 한 미국도 동참하지 않을 것이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억제에 관한 입장이 향후 기후변화 국제협약의 성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